

신술위 | 책임연구원 (제 7134)

- 주요 뉴스: 미국 주식 상호관세 발표 이후의 낙폭 만회 관세분쟁 국면 전환 기대감 확산
 - 유로존, 4월 근원 CPI 상승률 반등 및 예상치 상회
 - 블룸버그 서베이, 응답자 다수 '9월까지 연준 금리 동결' 전망
 - OPEC+, 6월 일일 산유량 약 40만배럴 추가 증산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고용지표 호조 및 관세 갈등 해소 기대감이 영향
 - 미국 주가 상승[+1.5%], 달러화 약세[-0.2%], 미국 금리 상승[+9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양호한 고용지표 및 관세분쟁 완화 기대감에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도 미국 무역협상 기대감에 강세
 - 환율: 달러화 지수는 무역협상 낙관론 속 여타국 통화 강세에 소폭 하락
유로화 가치는 0.1% 상승, 엔화 가치는 0.3% 상승
 - 금리: 미국(10년물)은 4월 비농업고용 지표 호조에 금리인하 기대가 축소되며 상승
독일은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웃돌며 9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396.6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9.3원, -0.43% 하락). 한국 CDS 하락

		5/2일	5/1일	전일대비			5/2일	5/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686.7	5604.1	1.47%	국채 금리 10y	미국	4.31	4.22	9bp
	유럽	536.4	527.6	1.67%		독일	2.53	휴장	9bp
	중국	휴장	휴장	-		영국	5	4	3bp
	일본	36,831	36,452	1.04%	CDS 5y	한국	29bp	32bp	-3bp
	한국	2559.8	휴장	0.12%		중국	59bp	61bp	-2bp
	달러지수	100.04	100.25	-0.21%	위험 지표	EMBI+	-	413	-
환율	유로화	1.1297	1.129	0.06%		VIX	22.68	24.6	-7.80%
	엔화	144.96	145.39	0.30%		WTI유	58.29	59.24	-1.60%
	위안화	휴장	휴장	-	원자재	구리	462.8	458.1	1.02%
	원화	1405.3	휴장	1.12%		금	3240.5	3239.2	0.04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미국 주식, 상호관세 발표 이후의 낙폭 만회. 관세분쟁 국면 전환 기대감 확산
 - S&P500은 한 달 만에 상호관세 발표(4.2일) 이후의 손실분(-12.1%)을 모두 만회. 연 고점(2.19일) 대비 낙폭은 -18.9%에서 -7.4%로 축소
 - 달러화는 여전히 상호관세 발표일 대비 -3.6% 하락,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+18bp 상승한 상황으로 주가 대비 회복세가 제한된 모습
 -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관련 완화적 기조로 일부 후퇴한 가운데, 4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전월 대비 17.7만명 증가하며 예상치(13.8만명)를 상회하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. 4월 실업률은 4.2%로 전월과 동일 및 예상치에 부합
 - 이에 더해 중국이 펜타닐 화학원료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미중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뒷받침.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
 - 한편, 캐나다 카니 총리는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내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며, 중장기 경제·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
 - 다만, 최근 진전에도 불구하고 관세 분쟁의 충격이 아직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, 미국 1분기 성장부진이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상존
 - New Century Advisors는 트럼프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초기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, 연준도 이를 지켜보며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. 금리인하는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에 무게
 - Anacapa Advisors는 관세 관련 정책 방향성이 불투명해 기본적인 투자 판단조차 어려운 '완전한 불확실성(no man's land)' 속에 놓여 있다고 경고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유로존, 4월 근원 CPI 상승률 반등 및 예상치 상회
 - 유로존 4월 CPI 상승률은 2.2%로 전월과 동일하며,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 2.4%에서 2.7%로 반등. 두 지표 모두 예상치(2.1%, 2.5%)를 상회

- 다만, 이는 부활절 시기 차이(작년 3월, 올해 4월) 등으로 인한 서비스 물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, 시장에서는 5월 ECB의 금리인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상존

■ 블룸버그 서베이, 응답자 다수 '9월까지 연준 금리 동결' 전망

- 4월말 시행된 설문에서 향후 12개월 내 미국 경기침체 또는 제로 성장을 전망한 응답자 비중은 75%로, 3월(26%) 대비 크게 확대. 다만, 연내 연준 추가 금리인하 횟수는 기존 설문과 동일하게 2차례(중간값)로 전망
- 응답자들은 관세 외에도 세제 개편, 이민 축소, 규제완화와 같은 정책들의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, 12개월 내에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와 고용 극대화 목표가 충돌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

■ OPEC+, 6월 일일 산유량 약 40만배럴 추가 증산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

- 아직 증산은 확정되지 않았으나, OPEC+가 5월에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의 증산을 단행한 만큼 유가 하락에 대한 경계감 고조

■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, 글로벌 식품 가격 '23.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

- 식품 원자재의 국제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유엔(UN) 세계식품가격지수(FFPI)가 전월비 1% 상승하며 2년래 최대인 128.3를 기록
- UN FAO는 일부 국가들이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식품 비축에 나서며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를 견인했을 가능성을 지적

■ 홍콩 1분기 GDP 성장률, '23.4분기 이후 최대. 관세분쟁에 따른 하방압력 여전

- 홍콩 1분기 GDP는 관광 회복과 관세 인상 전 수출 선주문 효과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3.1% 증가하고 시장 예상치(2.1%)를 상회. 4월 이후 본격화된 관세 분쟁으로 인해 수출둔화 우려가 높다는 평가도 상존

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독일 3월 공장수주 소매판매(7일)·산업생산(8일), 미국 3월 무역수지(6일), 중국 4월 CPI 상승률(9일) 등 발표 예정
- 연준 FOMC 회의(7일),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(8일), 월러 연준 이사(9일) 및 뉴요 연은 윌리엄스 총재(9일) 발언 등이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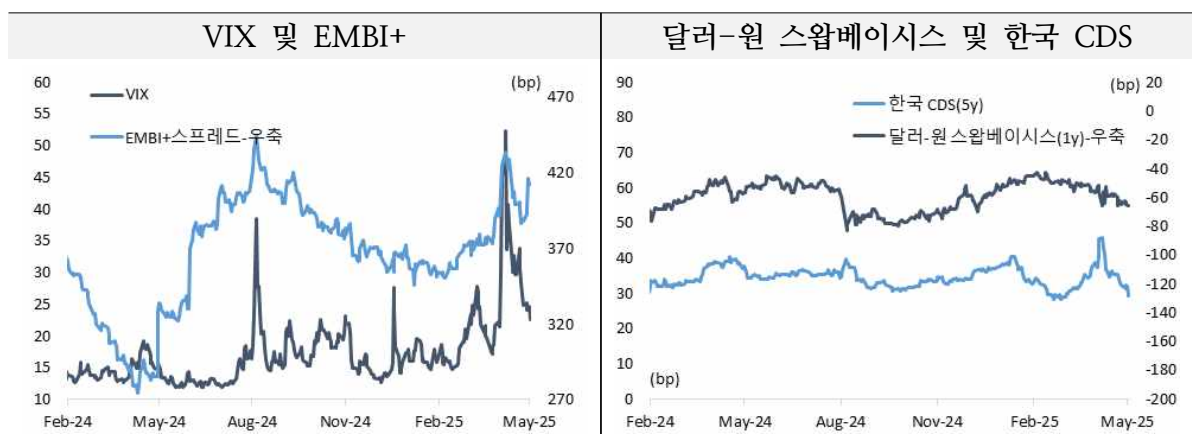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46, E-mail swshin@kcif.or.kr